

ISSN 2288-7083

경제전망보고서

2021. 2



한국은행
BANK OF KOREA

BANK OF KOREA

경제전망보고서

2021. 2

차례

〈요 약〉

I. 대내외 여건 점검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11
〈주요 전망 전제치〉	14
II. 거시경제 전망	15
1. 경제성장	15
2. 고용	29
3. 물가	33
4. 경상수지	37
III. 주요 현안점검	38
1.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38
2.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46

요 약

- 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3.0%, 2022년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비IT부문도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그간의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② 취업자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 증가할 전망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대면서비스 수요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3%, 2022년 1.4%로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 등이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과 2022년중 각각 640억달러와 620억 달러로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0년 4%대 중반에서 2021년 3%대 중반, 2022년에는 3%대 초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

경제 전망

	2020		연간	2021 ^{e)}		연간	2022 ^{e)}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 GDP ¹⁾	-0.7	-1.2	-1.0	2.6	3.4	3.0	2.5
민간소비	-4.4	-5.5	-5.0	0.2	3.8	2.0	2.8
설비투자	5.6	8.0	6.8	6.9	3.8	5.3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3	4.2	3.7	4.1	4.0	4.1	3.5
건설투자	1.7	-1.8	-0.1	-1.2	2.6	0.8	2.1
상품수출	-2.9	1.7	-0.5	13.0	2.0	7.1	2.3
상품수입	-0.9	0.8	0.0	7.6	5.3	6.4	3.3
▪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6	-38	-22	-9	26	8	18
▪ 실업률	4.3	3.6	4.0	4.5	3.6	4.0	3.8
▪ 고용률	60.0	60.2	60.1	59.5	60.6	60.0	60.1
▪ 소비자물가 ¹⁾	0.6	0.5	0.5	1.2	1.4	1.3	1.4
식료품·에너지 제외	0.4	0.3	0.4	0.6	1.3	1.0	1.3
농산물·석유류 제외	0.6	0.7	0.7	0.9	1.3	1.1	1.3
▪ 경상수지(억달러)	190	562	753	330	310	640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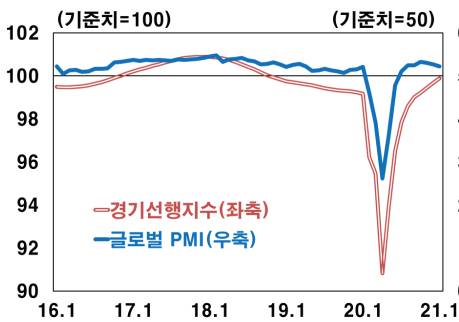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I. 대내외 여건 점검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연초에 더딘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모습
 - 앞으로 주요국 경기부양책 지속, 백신보급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백신보급 지연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경기선행지수¹⁾ 및 글로벌 PMI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20 ^{e)}	2021 ^{e)}	2022 ^{e)}
IMF	21.1월	-3.5	5.5	4.2
(선진국)		-4.9	4.3	3.1
(신흥국)		-2.4	6.3	5.0
OECD	20.12월	-4.2	4.2	3.7
Global Insight	21.2월	-3.7	5.2	4.4
6개 IB 평균	21.2월	-3.3	6.1	4.5

주: 1) OECD 회원국과 6개 신흥국(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기준
 자료: OECD, JP Morgan

□ 세계교역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서비스교역*은 해외여행 부진으로 회복이 더디지만 상품교역**은 회복세를 지속

* 주요 13개국 서비스수입액(WTO 집계, 전년동월대비, %):
20.8월 -25.8 → 9월 -18.2 → 10월 -21.4 → 11월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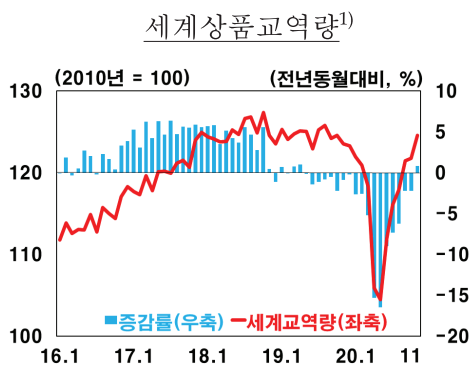
** 세계상품교역량(CPB 수입량, 전년동월대비, %):
20.7월 -7.3 → 8월 -6.2 → 9월 -2.2 → 10월 -2.2 → 11월 0.8

- 향후에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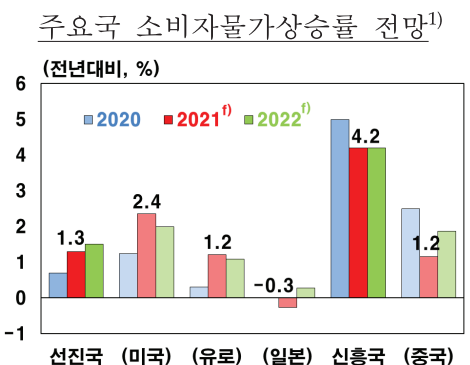
- 백신보급이 국가간 시차를 두고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교역의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부진 완화, 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 다만, 중국의 경우 돼지고기 등 식품가격 안정, 위안화 강세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



주: 1) 상품수입물량 기준
자료: CPB



주: 1) IMF(21.1월) 기준, 각국은 6개 IB 평균
자료: IMF, Bloomberg

(미 국)

□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금년 1월 들어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

* GDP성장률(전기대비): 20.3/4분기 7.5% → 4/4분기 1.0%

-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던 소매 판매가 금년 1월에는 큰 폭 증가*로 전환

* 금년 1월중 미국정부는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 지급(총 1,420억달러)

- 산업생산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

○ 향후 백신보급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상반기중 0.9조달러(2020년 GDP대비 4.3%)의 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최대 1.9조달러(9.1%)의 추가 대책을 추진

▶ 미국 성장률 전망(%)	2020	2021 ^{e)}	2022 ^{e)}
· IMF(21.1월)	-3.5	5.1	2.5
· OECD(20.12월)		3.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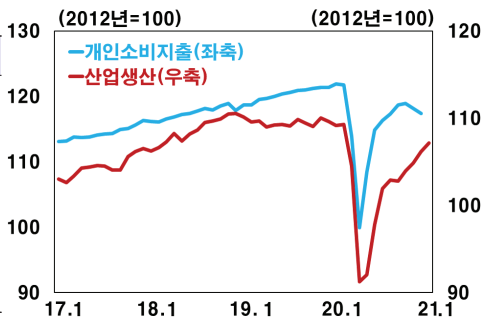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1.1	0.9	1.3	0.9
서비스소비	0.3	-0.3	-0.2	..
소매 판매	-0.1	-1.3	-1.0	5.3
실업률(%)	6.9	6.7	6.7	6.3
ISM제조업지수 ¹⁾	58.8	57.7	60.5	58.7
ISM비제조업지수 ¹⁾	56.2	56.8	57.7	58.7

주: 1) 기준치=50

자료: 연준,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ISM

개인소비지출 및 산업생산



자료: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유로지역)

□ 당분간 부진한 경기흐름이 이어지다가 회복세가 재개될 전망

○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연장*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

* 서유럽 ELI: 20.11월 44.1 → 12월 44.9 → 21.1월 54.2

** GDP성장률(전기대비): 20.3/4분기 12.4% → 4/4분기 -0.6%

▪ 20.12월 소매판매는 전월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21.1월 서비스업PMI는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하회

○ 백신보급, ECB의 추가 경기부양조치 등으로 2/4분기 이후 완만한 개선세 예상

▪ 다만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산, 백신공급 지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4분기 공급량이 기존 계획의 절반에 그침

▶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	2020	2021 ^{e)}	2022 ^{e)}
· IMF(21.1월)		4.2	3.6
· OECD(20.12월)	-6.8	3.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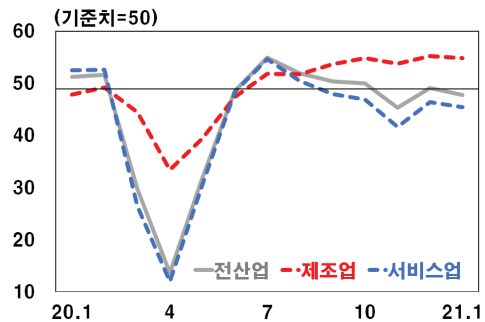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2.5	2.6	-1.6	..
소매 판매	1.4	-5.7	2.0	..
실업률(%)	8.4	8.3	8.3	..
제조업PMI ¹⁾	54.8	53.8	55.2	54.8
서비스PMI ¹⁾	46.9	41.7	46.4	45.4

주: 1) 기준치=50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 IHS Markit

(일 본)

□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이후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지난해 11월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개선세가 약화*

* GDP성장률(전기대비): 20.3/4분기 5.3% → 4/4분기 3.0%

▪ 20.12월 소매판매가 전월에 이어 감소한 가운데 1월 긴급사태 발령*
으로 서비스업PMI가 기준치를 지속 하회

* 수도권(1.8일~3.7일)과 오사카 등 주요지역(1.13일~3.7일)

○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 3차 경제대책(총 73.6조엔, 정부지출 32.3조엔(GDP대비 5.8%)) 발표 및
2021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106.6조엔, 전년대비 +3.8%) 편성

▶ 일본 성장률 전망(%)	2020	2021 ^{e)}	2022 ^{e)}
· IMF(21.1월)		3.1	2.4
· OECD(20.12월)	-4.8	2.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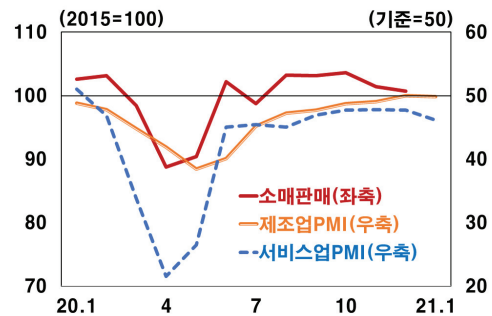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4.0	-0.5	-1.0	..
소매판매	0.5	-2.1	-0.7	..
수출(통관)	2.8	0.2	0.3	4.4
민간기계수주액 ¹⁾	17.1	1.5	5.2	..
제조업 PMI ²⁾	48.7	49.0	50.0	49.8
서비스업 PMI ²⁾	47.7	47.8	47.7	46.1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자료: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소매판매 및 PMI



자료: 경제산업성, IHS Markit

(중 국)

□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최근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견조한 성장세*

*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0.3/4분기 4.9% → 4/4분기 6.5%

▪ 지난해 12월 고정투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수출도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앞으로 쌍순환 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R&D 및 신인프라투자(5G망, 데이터 센터 등) 예산 확대, 내수 확대 방침 등을 발표(중앙경제공작회의, 20.12월)

▪ 미·중 갈등 심화, 기업 부실채권 증가 및 코로나19 재확산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중국 성장률 전망(%)	2020	2021 ^{e)}	2022 ^{e)}
· IMF(21.1월)		8.1	5.6
· OECD(20.12월)	2.3	8.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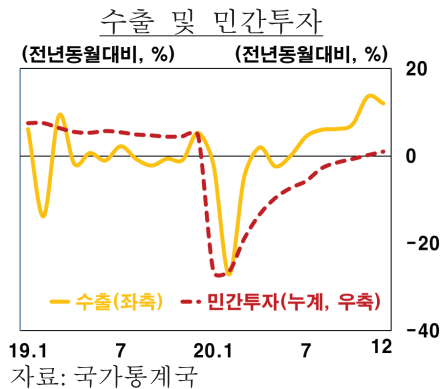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6.9	7.0	7.3	..
소매판매	4.3	5.0	4.6	..
고정투자 ¹⁾	1.8	2.6	2.9	..
수출	10.9	20.6	18.1	..
제조업PMI ²⁾	51.4	52.1	51.9	51.3
서비스업PMI ²⁾³⁾	55.5	55.7	54.8	51.1

주: 1)누계 기준 2)기준치=50

3)서비스업 상업활동지수 기준

자료: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신흥국)

□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국별로 상이한 경기 흐름을 나타낼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개선세가 미약할 전망

- 소비 지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동제한조치*가 강화

* ELI(5개국 평균): 20.11월 59.6 → 12월 60.9 → 21.1월 63.2 → 2.1~7일중 63.9

○ 인도는 이동제한조치 완화* 및 백신보급 확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제한조치 강도를 점진적으로(9차례) 완화

- 1월 수출이 전월에 이어 증가한 가운데 전산업 및 제조업 PMI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

아세안5¹⁾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²⁾	-1.4	-0.9	0.7	..
소매 판매	-8.4	-7.9
수출	1.3	5.7	13.1	..
(대중수출)	6.4	18.2	23.2	..
제조업PMI ³⁾	49.5	49.8	50.4	50.8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4.2	-2.1	1.0	..
자동차판매	10.5	6.0	0.7	0.4
수출	-5.1	-8.7	0.1	6.2
제조업PMI ¹⁾	58.9	56.3	56.4	57.7
전산업PMI ¹⁾	58.0	56.3	54.9	55.8

주: 1)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2) 인도네시아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브라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전망

* 일평균 신규확진자수: 20.9월 30,089명 → 21.1월 49,315명 → 2.1~2.10일중 46,721명

-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난해 지급된 대규모 재난지원금의 연장이 불투명

▶ 재정지표(GDP대비, %)	2018	2019	2020
· 정부부채	75.3	74.3	89.3
· 기초재정수지	-1.5	-0.8	-9.5

-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

-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락했던 제조업 및 전산업 PMI가 금년 들어 기준치를 다시 상회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0.3	2.6	8.2	..
소매판매	8.4	3.5	1.1	..
수출	-9.6	-1.7	-0.2	2.2
제조업PMI ¹⁾	66.7	64.0	61.5	56.5
서비스업PMI ¹⁾	52.3	50.9	51.1	47.0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10월	11월	12월	21.1월
산업생산	-5.7	-1.5	2.1	-2.5
소매판매	-1.4	-3.1	-3.6	-0.1
수출	-23.8	-16.9	-10.4	..
제조업PMI ¹⁾	46.9	46.3	49.7	50.9
전산업PMI ¹⁾	47.1	47.8	48.3	52.3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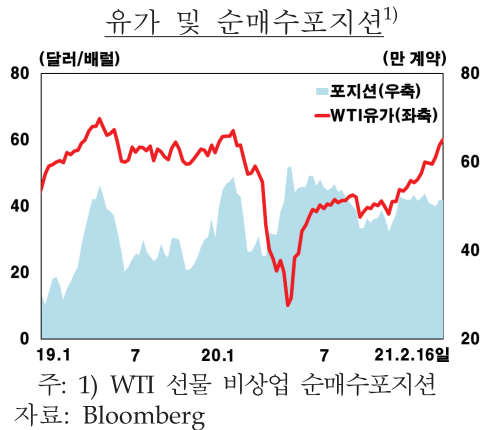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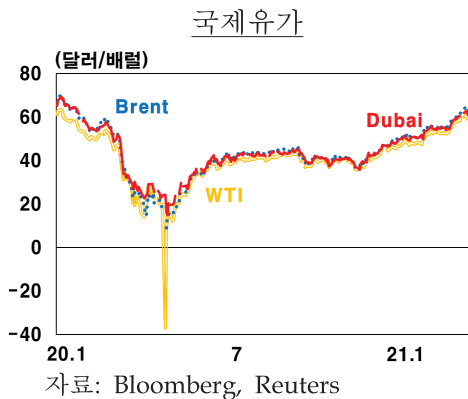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6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

○ 백신접종 개시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가운데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기대 등이 가세한 데에 기인

*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규모에 더해 금년 2~3월중 일평균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 실시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투자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도 지속*되면서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 VIX(공포지수)가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 발표(20.11.9일) 이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비상업 순매수포지선도 2020년 하반기 이후 확대



□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조 등으로 미국의 원유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점*도 유가 상승을 뒷받침

* 미 원유생산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10% 가량 감소

○ 다만 주요 산유국의 감산 축소*,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 등은 추가 상승을 제약

* OPEC+ 감산 쿼터가 점진적으로 축소(20.12월 770만배럴/일 → 1월 720 → 2월 712.5 → 3월 705)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규모(100만배럴/일 2~3월중)도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Reuters, 2.16일)

□ 기타원자재(비철금속·곡물)가격은 주요국 제조업 경기회복, 중국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 지난해 4/4분기중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양돈 사료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

** LME비철금속지수(2.17일)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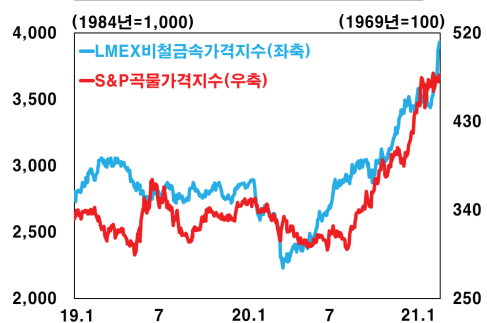
○ 향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단기간내에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OEF, 21.2월)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

	2021 (달러/배럴)			2022
	상반	하반	연간	
EIA (2.9일)	54.5	52.0	53.2	55.2
IHS (1.15일)	55.3	58.4	56.9	60.1
OEF (2.10일)	55.2	55.8	55.5	56.6

주: 1) 브렌트유 기준, ()내는 전망일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재정지출)

□ 금년중 재정지출은 2.6% 늘어 지난해(14.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경(66.8조원 규모)이 편성

○ 일반·지방행정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축소*되는 반면,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으로 SOC 및 R&D 부문 등은 확대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

○ 2022년 재정지출은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재정지출 전망¹⁾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통합재정지출 (증감률 ²⁾)	300.7 (11.2)	222.6 (20.2)	523.3 (14.8)	327.5 (8.9)	209.4 (-6.0)	536.8 (2.6)	576.2 (7.3)
- 경상지출	261.1	196.4	457.4	283.6	181.3	464.9	499.2
- 자본지출	21.3	11.1	32.4	23.0	14.7	37.7	40.5
- 순 용 자	18.3	15.2	33.5	20.8	13.3	34.2	36.5

주: 1) 통합재정 기준 2)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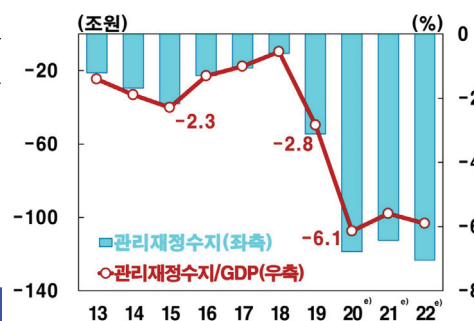
□ 2021~22년중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할 전망

주요 분야별 총지출

구 분	(조원, %)		
	2020 ¹⁾	2021 ²⁾	증감(률)
· 보건·복지·고용	197.8	199.7	1.9 (1.0)
· 일반·지방행정	94.0	84.7	-9.3 (-9.9)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5.5	28.6	-6.9 (-19.4)
· R&D	24.3	27.4	3.1 (12.8)
· SOC	22.9	26.5	3.6 (15.7)
총지출	554.7	558.0	3.3 (0.6)

주: 1) 4차 추경예산 기준 2) 본예산 기준
3) 2020년은 4차 추경예산, 2021년은 본예산, 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³⁾



(부동산시장)

- 최근 주택매매가격은 상승기대*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주택가격전망CSI: 20.10월 122 → 11월 130 → 12월 132 → 21.1월 130
(100초과시 향후 1년 후 하락보다 상승 전망이 우세, 자료: 한국은행)

(전월대비, %)	20.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월
▶ 전국	0.5	0.4	0.3	0.5	0.9	0.8
- 수도권	0.5	0.4	0.3	0.5	0.7	0.8
- 비수도권	0.4	0.4	0.3	0.6	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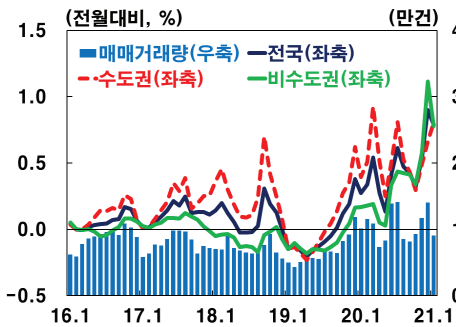
- 이에 정부는 2.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 2025년까지 서울 32.3만호 등 총 83.6만호의 부지를 확보

- 주택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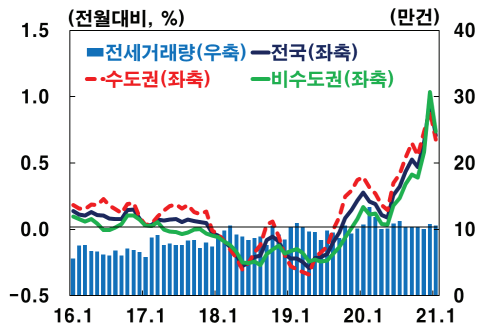
*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 20.11월 107.2 → 12월 111.0 → 21.1월 111.1
(100초과시 전세수요가 전세공급보다 많음,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 및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전세가격 및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금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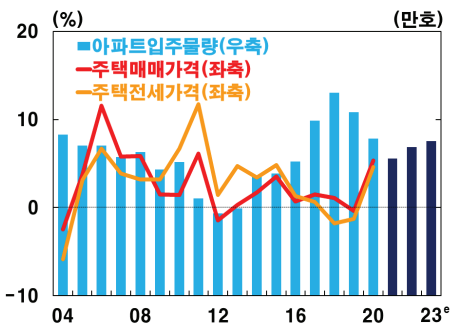
* 20.8.4일 수도권 127만호 공급대책, 21.2.4일 공급대책 등

○ 또한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상향 조정(20년 60~70% → 30년까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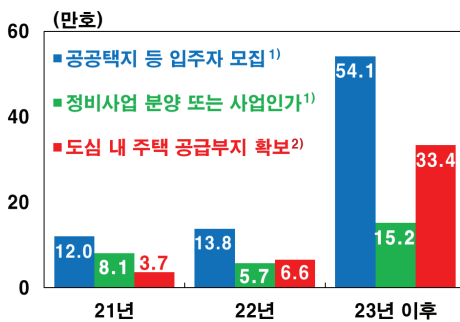
□ 금년중 주택전세가격은 정부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주택가격 및 입주물량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자체 추정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주: 1) 20.8.4일 공급대책
2) 21.2.4일 공급대책
(신규 공공택지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주요 전망 전제치>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

□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 2021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5.0%로 전제

○ 2022년은 3.7%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7.1%로 전제

○ 2022년은 4.5% 증가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56달러로 전제

○ 2022년은 61달러 수준

전망 전제치

	2020 ^{e)}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 세계경제 성장률(%) ¹⁾	-3.7	5.9	4.0	5.0	3.7
미 국	-3.5	4.4	4.3	4.4	2.8
유 로	-6.8	5.0	2.1	3.4	3.2
일 본	-4.8	2.4	2.3	2.4	1.8
중 국	2.3	12.4	4.7	8.1	5.3
▪ 세계교역 신장률(%) ¹⁾	-9.7	8.9	5.2	7.1	4.5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²⁾	43	56	57	56	61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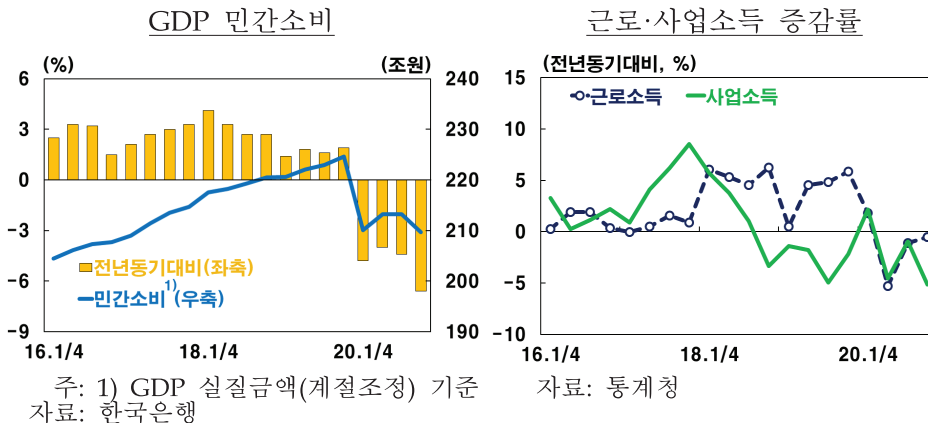
2) 기간 평균, CIF 기준, 원유도입비중(2019년 기준): 중동산 70%, 여타 30%

Ⅱ.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 금년 들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
 - 1월에는 대면서비스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향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부진, 감염우려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더딜 전망
 - 가계소득은 고용상황 및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개선이 지연
 - 지난해 4/4분기중 가계부문의 근로·사업소득은 자영업 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 * 전체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3/4분기 -1.0 → 4/4분기 -5.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부활동 관련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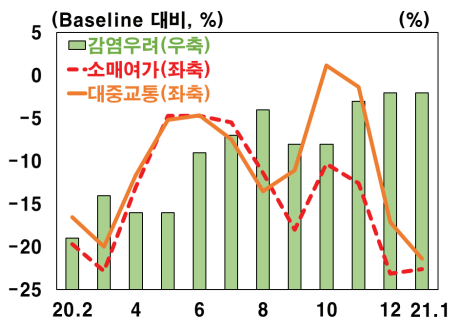
- 3차 확산 이후 경제활동 관련 이동성 지표가 1차 확산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소비와 국외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제약 될 것으로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의 개선은 더딜 것으로 예상

○ 향후 국가간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더라도 해외여행 기피 경향 등으로 거주자 국외소비는 회복이 지연될 소지

감염우려¹⁾²⁾ 및 이동성지표¹⁾



주: 1) 월평균 기준
 2) 본인 감염가능성이 '많이+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한 비중
 자료: Google Mobility, 한국갤럽

2021년중 해외여행 가능성¹⁾ 조사

	(%)	
	관광·휴식 목적	업무 목적
평균 ²⁾	29	17
한국	14	6
미국	19	8
영국	37	9
독일	39	14
프랑스	30	9

주: 1) '가능성 매우 크다' 또는 '큰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
 2) 조사대상국가 32개국 평균
 자료: WIN World Survey, 한국갤럽

□ 한편 정부 지원정책,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소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

* 소비 활성화 정책(조원, 2020년 → 2021년)

▶ 소비활력 제고 관련 예산: 0.7 → 2.1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11.5 → 18.0

○ 또한 비자발적 소비 제약 등으로 상당폭 늘어난 가계저축*은 감염확산이 진정될 경우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

* 가계저축률(% , 가계동향조사 흑자율 기준, 분기평균):

2019년 27.8% → 2020년 31.6% <전년동기비 +3.8%p>

⇒ 민간소비는 지난해 5.0%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2.0%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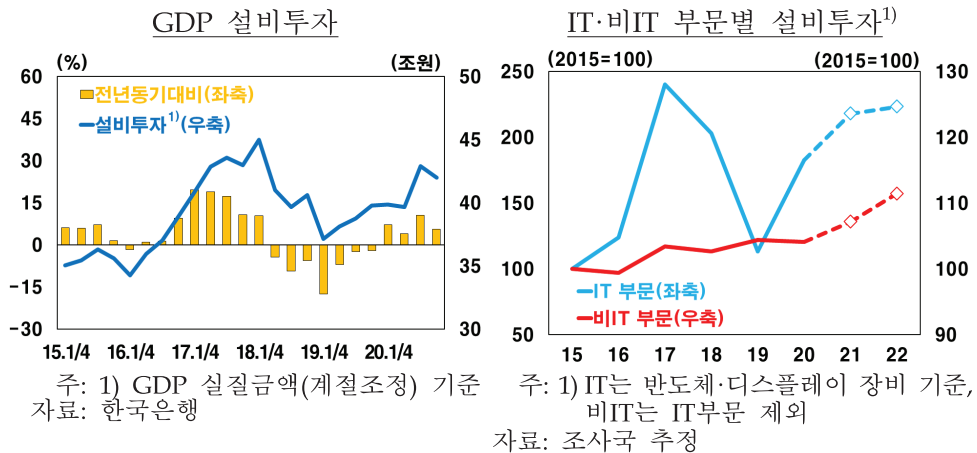
민간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4.4	-5.5	-5.0	0.2	3.8	2.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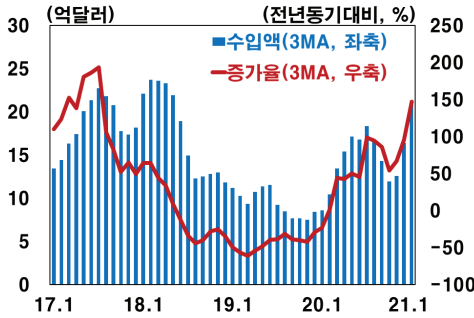
(2) 설비투자

- 금년 들어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
- 향후 설비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반도체경기 회복으로 IT부문이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면서 비IT부문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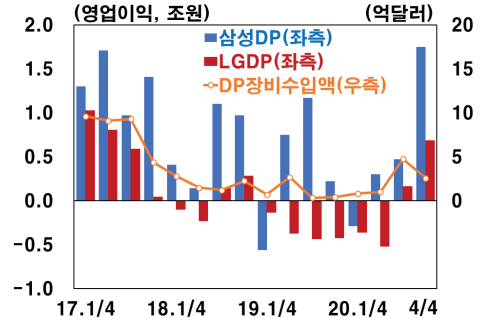
- IT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반도체는 5G 보급 확대, 데이터센터 증설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한 투자가 진행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증설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비대면수요 확대에 따른 LCD 단가 상승 및 판매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관세청

디스플레이업체 수익성¹⁾과 장비수입액



주: 1) 영업이익 기준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관세청

□ 비IT부문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연되었던 유지·보수 투자에 신성장 부문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자동차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전기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투자를 지속

○ 철강 및 석유화학은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철강의 경우 탄소배출 규제강화에 대응한 친환경 투자를 실시

○ 조선은 금년중 환경규제 등으로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겠으나 지난해 수주 감소*에 따른 건조량 축소로 당분간 투자 확대는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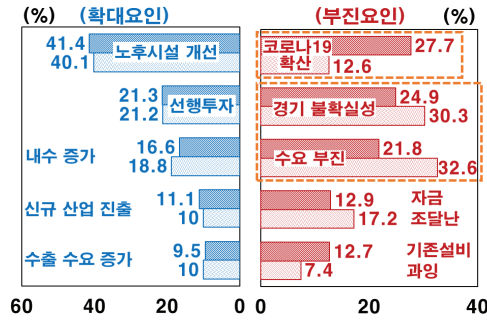
* 국내 신규 수주량(백만 CGT): 2018년 13.4 → 2019년 9.8 → 2020년 8.2

○ 한편 비대면수요 지속에 따른 운송수요 증가 등으로 내륙 운송업 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년대비)	2017	2018	2019	2020
▶ 소화물운송업 생산 증가율	9.6	2.4	7.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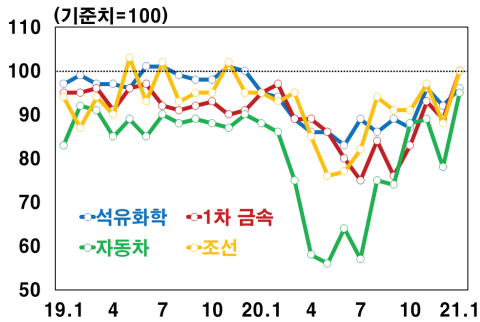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 확대 및 부진 요인¹⁾



주: 1) ■, ■는 20.6월 기준, ■, ■는 20.12월 기준
 자료: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0.12월)

설비투자 BSI¹⁾



주: 1) 실적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지난해 6.8% 증가한 데 이어 금년에도 5.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에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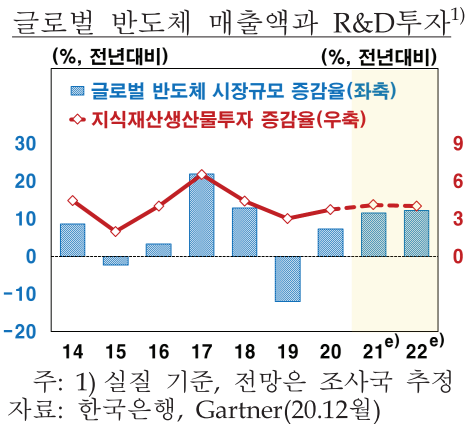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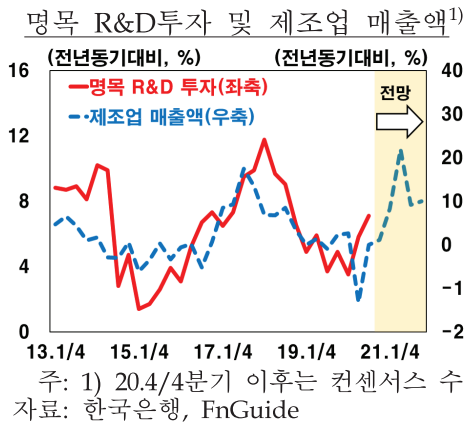
설비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5.6	8.0	6.8	6.9	3.8	5.3	3.0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R&D투자는 기업매출 회복, 정부 R&D 예산 증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정부는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위해 R&D 예산을 증액
-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가상융합기술, 자율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전략도 긍정적으로 작용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7%에서 금년중 4.1%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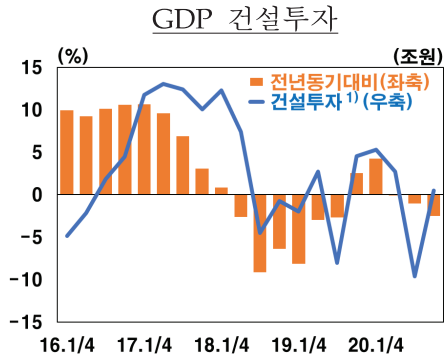
- 2022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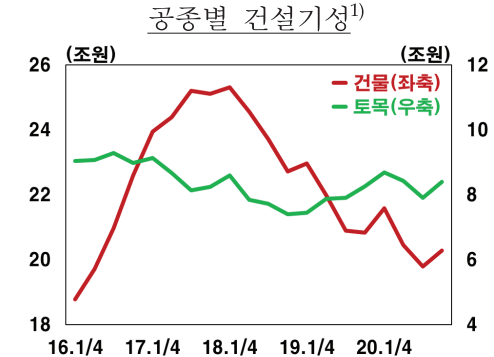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3.3	4.2	3.7	4.1	4.0	4.1	3.5

(4)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부진이 완화
-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중심의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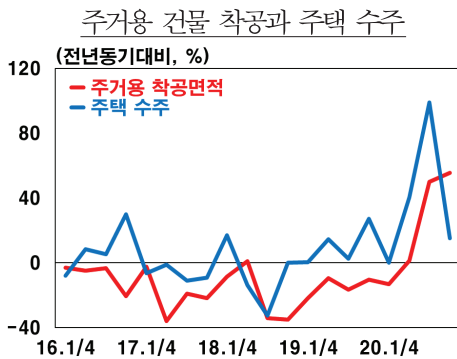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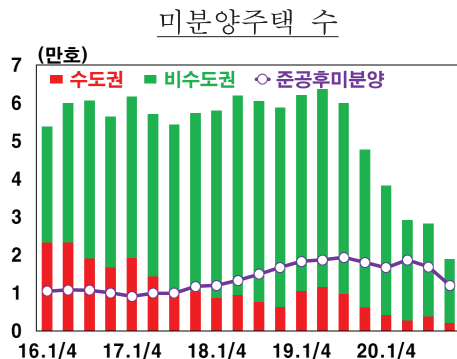


주: 1) 불변 건설기성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 주거용 건물은 양호한 선행지표 흐름,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착공 및 수주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신규 공사물량이 확대되는 모습
 - 주택건설 관련 예산 증액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도 주거용 건물 회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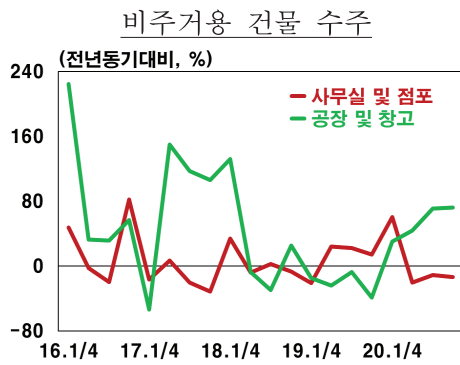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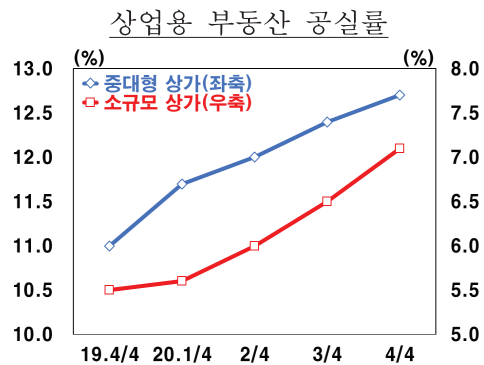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건물 등이 증가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상업용 건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에 따른 공실률 상승이 신규 공사발주를 제약
 - 반면 공업용 건물은 최근 수주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부동산원

- 토목은 SOC 예산 증액*, 공공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중앙정부 SOC 예산(본예산 기준, 조원): 2019년 19.8 → 2020년 23.2 → 2021년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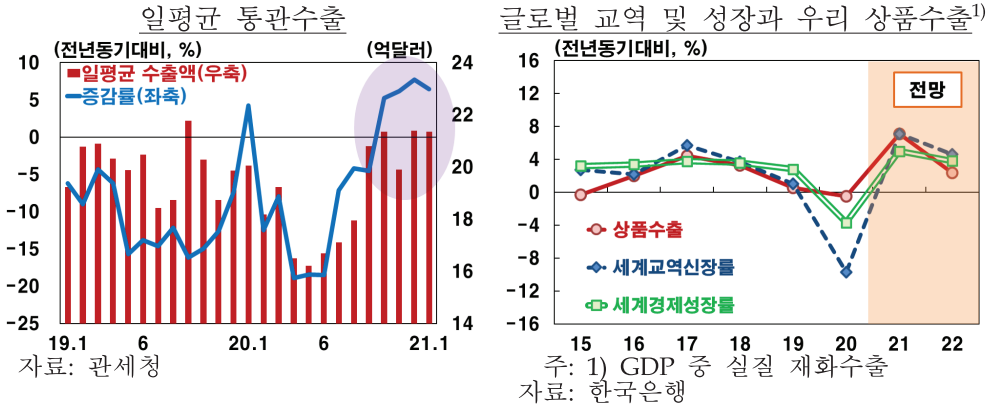
- 금년중 공공기관 투자(65조원)는 SOC·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계획(본예산 기준) 대비 5조원 확대
- ⇒ 건설투자는 지난해 0.1%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0.8% 증가로 전환될 전망
 - 2022년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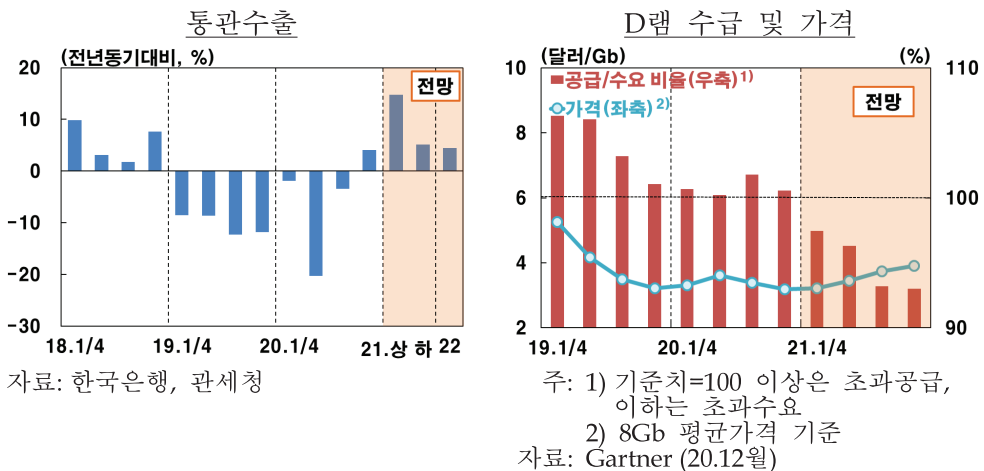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1.7	-1.8	-0.1	-1.2	2.6	0.8	2.1

(5) 상품수출

- 금년중 상품수출(GDP 실질 재화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1월중 통관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2월에도 증가세 지속



- 금액기준(통관수출)으로도 IT 및 비IT 품목 모두 증가할 전망
 -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패널·휴대폰도 5G 스마트폰 확산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
 - 글로벌 수요 확대로 D램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서 금년중 D램 단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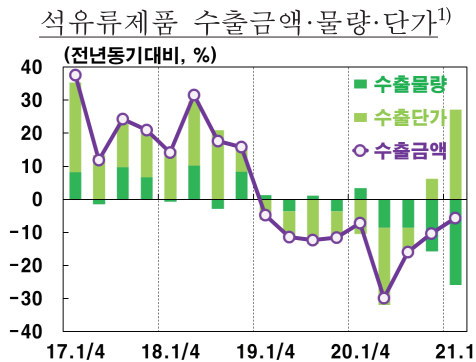


○ (비IT) 석유류(화공품·석유제품)는 수요·단가가 모두 회복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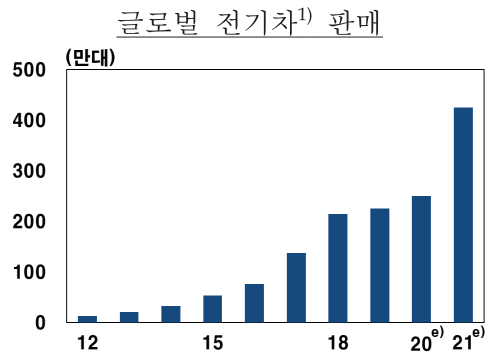
자동차가 글로벌 경기회복 및 전기차 수출 확대로 늘어나는 가운데 철강·기계류도 전방산업 수요 회복, 주요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증가

▪ 다만 의약품,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품목의 수출은 둔화될 전망

○ (무통관수출) 5G 스마트폰 확산,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주: 1) 석유류제품 수출금액을 수출 중량(톤)으로 나누어 산출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주: 1) BEV+PHEV
자료: IHS Markit, Berylls

⇒ 상품수출은 지난해 0.5%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7.1%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품수출¹⁾ 전망

		상품수출 ¹⁾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2.9	1.7	-0.5	13.0	2.0	7.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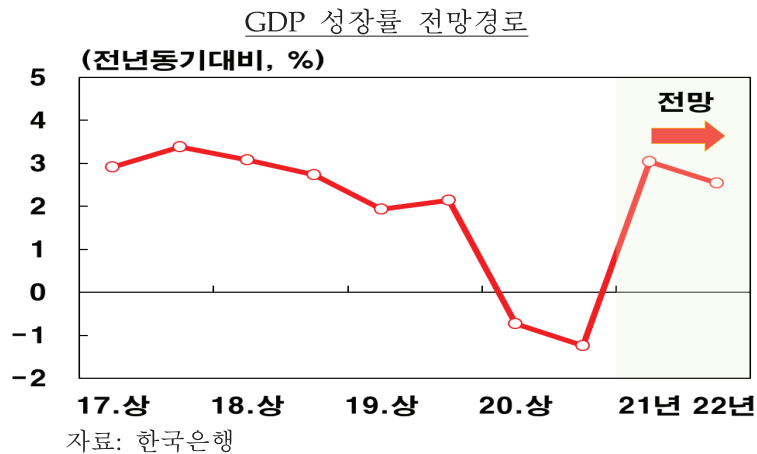
주: 1) GDP 중 실질 재화수출

(6) GDP 성장률

□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3.0%, 내년중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e)}	2022 ^{e)}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3.2	2.9	2.0	-1.0	3.0	2.5

○ 국내경기는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0.7	-1.2	-1.0	2.6	3.4	3.0	2.5
민간소비	-4.4	-5.5	-5.0	0.2	3.8	2.0	2.8
설비투자	5.6	8.0	6.8	6.9	3.8	5.3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3	4.2	3.7	4.1	4.0	4.1	3.5
건설투자	1.7	-1.8	-0.1	-1.2	2.6	0.8	2.1
상품수출	-2.9	1.7	-0.5	13.0	2.0	7.1	2.3
상품수입	-0.9	0.8	0.0	7.6	5.3	6.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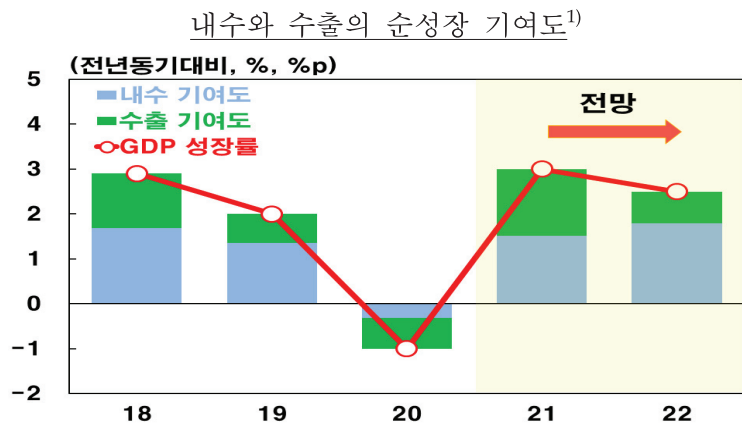
□ 금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수출 기여도 모두 증가로 전환될 전망

(%,%p)	2018	2019	2020	2021 ^{e)}	2022 ^{e)}
▶ GDP	2.9	2.0	-1.0	3.0	2.5
내수	1.7	1.4	-0.3	1.5	1.8
수출	1.2	0.6	-0.7	1.5	0.7

□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참고>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참조

- (상방리스크)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세 확대,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 (하방리스크)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고용 여건 개선 지연



주: 1) I/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산산

자료: 한국은행

<참고>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구분	세계	국내
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초중반 이후 빠르게 진정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내년 초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중후반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세계	국내
낙관	(2021년) +6.3, (2022년) +4.6	(2021년) +3.8, (2022년) +3.1
기본	(2021년) +5.0, (2022년) +3.7	(2021년) +3.0, (2022년) +2.5
비관	(2021년) +3.6, (2022년) +2.8	(2021년) +2.4, (2022년) +1.9

2. 고 용

(1) 동 향

□ 취업자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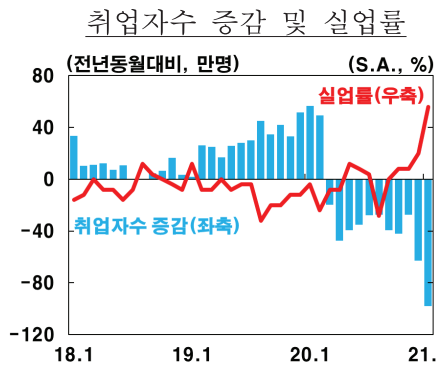
○ 금년 들어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업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

* 한파, 폭설 등 기상악화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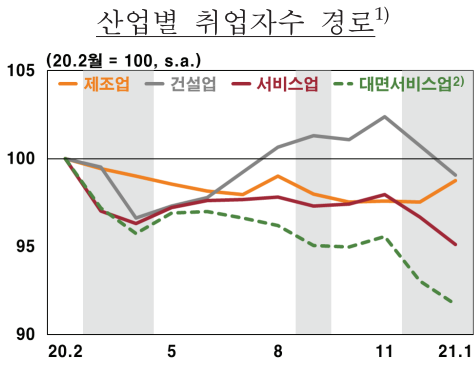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크게 확대

(전년동월대비, 만명)	20.4월	11월	12월	21.1월
취업자수 증감(전체)	-47.6	-27.3	-62.8	-98.2
산업별				
▶ 제조업	-4.4	-11.3	-11.0	-4.6
▶ 건설업	-5.9	7.7	2.3	-2.0
▶ 서비스업	-44.4	-26.6	-60.4	-89.8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40.0	3.8	0.5	3.6
▶ 임시일용직	-78.3	-20.7	-52.1	-79.5
▶ 비임금근로자	-9.4	-10.5	-11.2	-22.3

□ 실업률(S.A.)은 5.4%로 전월(4.5%)대비 큰 폭 상승



자료: 통계청



주: 1)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2)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2) 전 망

□ 고용상황은 당분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대면서비스 수요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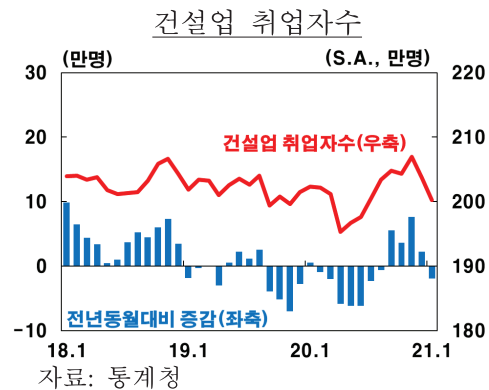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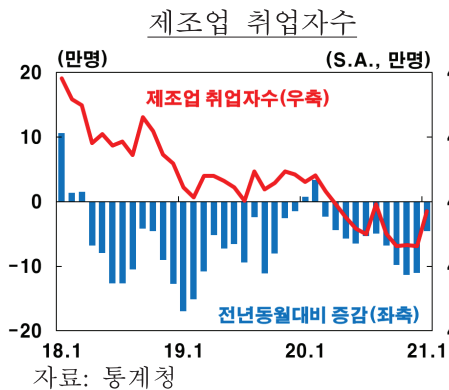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수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업황이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

* 금년중 반도체 등 IT부문이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취업자수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신규 건설수주 증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 SOC예산(본예산, 조원): 2020년 23.2 → 2021년 26.5

** 신규 건설수주액(전년대비, %): 2019년 6.2 → 2020년 15.8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당분간 대면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겠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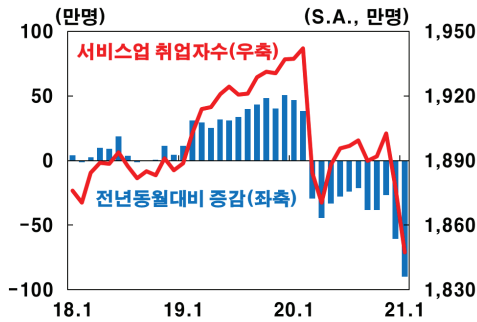
올해 중후반 이후 감염병 확산세 진정,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행정,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 증대* 및 조기 채용** 등으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규모(만명): 2020년 94.5 → 2021년 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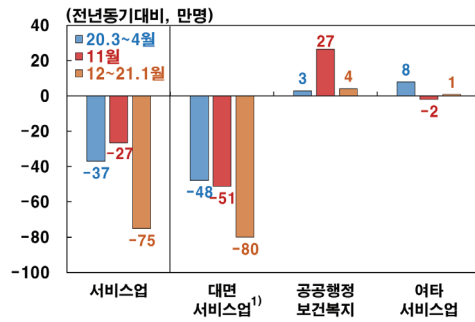
** 정부는 21.1/4분기중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목표(금년중 계획인원 대비 79.6%)

서비스업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주: 1)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 한편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시휴직자 및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이 축소·연기될 수 있는 데다,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단념자도 증가하면서 청년층, 저숙련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규모, 계절조정, 만명)	2018~19년 평균	20.4월	11월	12월	21.1월
▶ 실업자	106.8	105.3	117.0	125.7	151.9
▶ 일시휴직자 ¹⁾	40.5	117.7	65.2	90.7	62.2
▶ 구직단념자 ¹⁾	52.8	66.4	66.7	69.8	70.0

주: 1) 조사국 자체 계절조정

□ 취업자수는 금년중 8만명 증가할 전망

-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4.0% 및 3.8%, 고용률은 각각 60.0% 및 60.1%로 전망

○ 2022년에는 18만명 증가할 전망

고용 전망

	(만명,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증감 ¹⁾	-6	-38	-22	-9	26	8	18
실업률	4.3	3.6	4.0	4.5	3.6	4.0	3.8
(S.A.)	3.9	4.1	-	4.1	4.0	-	-
고용률 ²⁾	60.0	60.2	60.1	59.5	60.6	60.0	60.1
	[65.9]	[65.9]	[65.9]	[65.3]	[66.1]	[65.7]	[65.7]

주: 1)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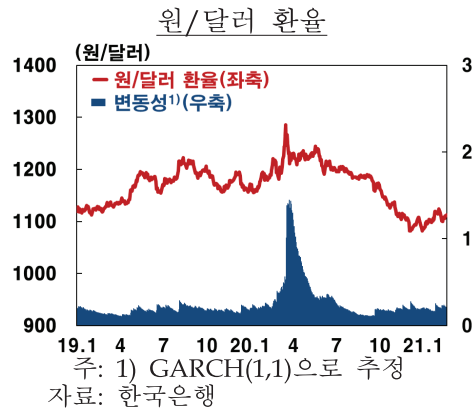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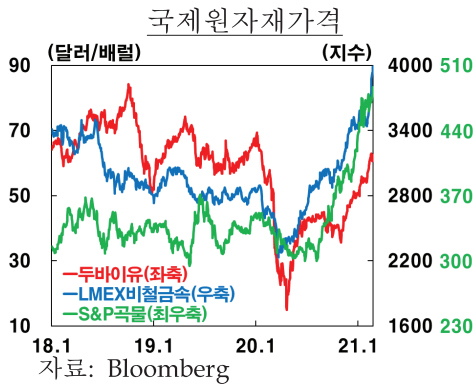
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3. 물 가

(1) 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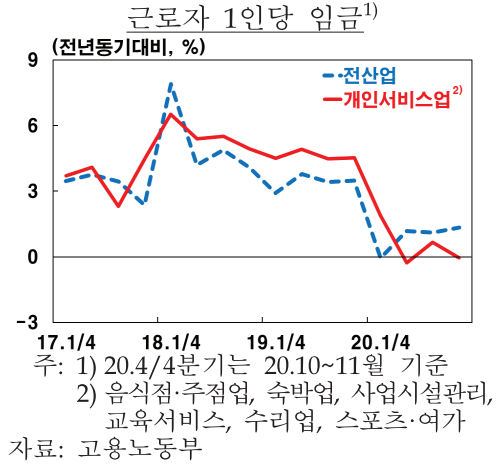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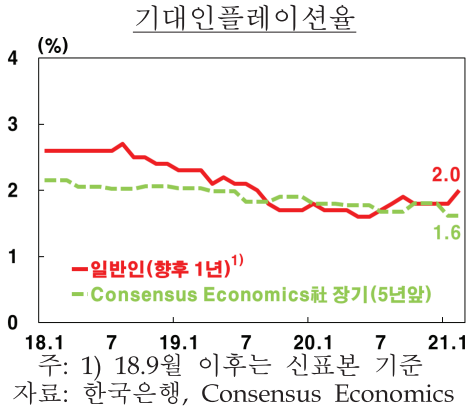
(해외요인)

-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6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
 - 곡물 및 비철금속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 (환율)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중 빠르게 하락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다소 높아짐



(국내요인)

- (국내수요)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기대물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은 최근 2% 수준으로 상승*
 - * 20.10~21.1월 1.8% → 21.2월 2.0%
- (노동비용) 명목임금은 경기와 기업 수익성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기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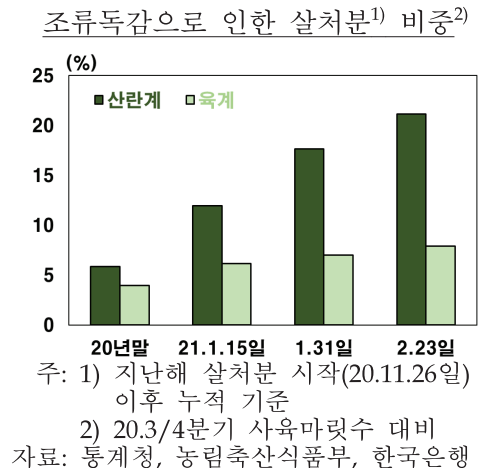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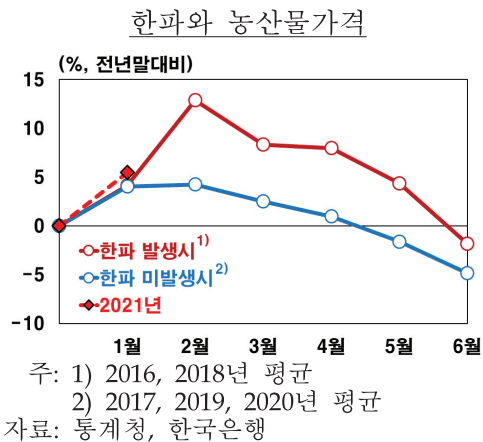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은 당분간 예년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Ⅲ. 주요 현안점검> '2.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참조

- 다만 향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봄철 채소가 출하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공급차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은 달걀 등 일부 축산물가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정부정책)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점차 축소*될 전망

* 지난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의 물가하방압력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20.4/4분기)의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

○ 다만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 기본 5.0% → 20.3~6월 1.5% → 7~12월 3.5% → 21.1~6월 3.5%
(지난해말 종료예정이었으나 금년 6월까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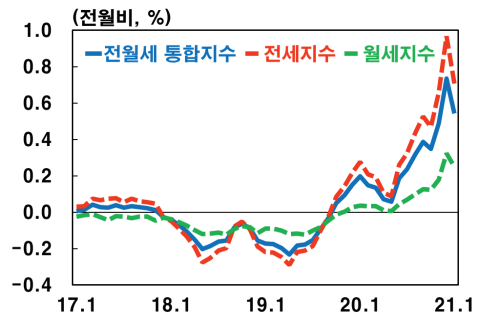
□ (집세) 전·월세 가격(신규계약 기준) 상승 지속으로 집세(CPI 기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요 공공요금 조정 계획¹⁾

분류	내용
인상	수도 - 상하수도료 인상(충북, 7월 등)
인하	교육 - 고교납입금 무상화 확대(전북 등, 3월) - 무상급식 확대(서울·대구 등, 3월) -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3월)
	의료 - 흉부 초음파 급여화(2/4분기 예정) - 심장 초음파 급여화(3/4분기 예정) - 척추 MRI 급여화(4/4분기 예정)

주: 1) 2021년중 시행 기준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자체 서베이

전·월세 가격 상승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2) 전 망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며 지난해(0.5%)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도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지난해(0.4%)보다 높은 1.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 등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내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4%, 1.3%로 높아질 전망
 - 경기개선이 지속되고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는 데 주로 기인

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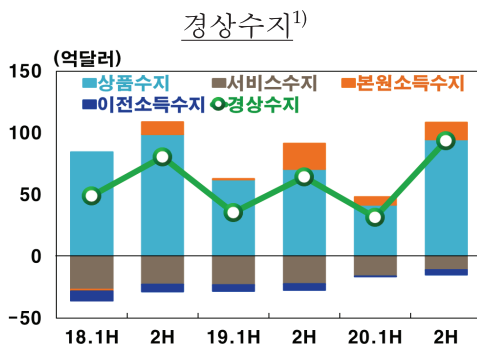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식료품·에너지 제외	0.4	0.3	0.4	0.6	1.3	1.0	1.3
농산물·석유류 제외	0.6	0.7	0.7	0.9	1.3	1.1	1.3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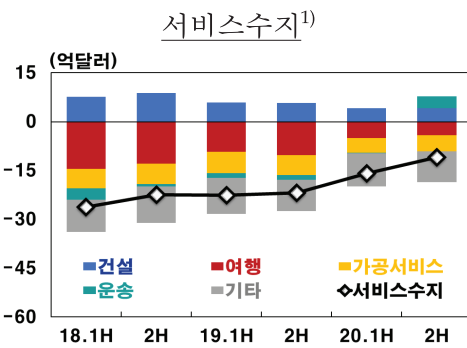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 코로나19 백신보급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심화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는 통관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 글로벌 경기회복,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흑자폭이 축소
 - (서비스수지) 글로벌 교역 확대 등으로 운송서비스 흑자가 지속되면서 적자폭이 소폭 축소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40억달러, 620억달러로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0년 4%대 중반에서 2021년 3%대 중반, 2022년에는 3%대 초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

경상수지 전망¹⁾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190	562	753	330	310	640	620
상품수지	251	568	819	410	330	740	730
수출(통관)	2,405	2,720	5,125	2,760	2,860	5,620	5,870
	(-11.3)	(0.3)	(-5.5)	(14.7)	(5.1)	(9.6)	(4.4)
수입(통관)	2,299	2,377	4,676	2,540	2,680	5,220	5,490
	(-9.0)	(-5.2)	(-7.1)	(10.5)	(12.7)	(11.6)	(5.2)
서비스·본원·이전소득	-61	-6	-67	-80	-20	-100	-110
서비스수지	-96	-66	-162	-60	-90	-150	-180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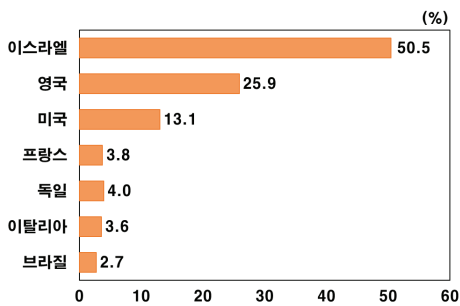
Ⅲ. 주요 현안점검

1.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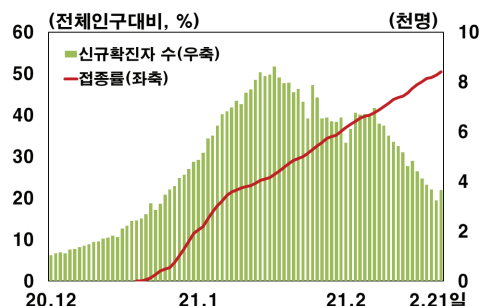
- 최근 각국은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 접종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 노력을 경주
 - 지난해 12월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은 인구의 절반 이상(2.21일 기준, 50.5%)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25.9%), 미국(13.1%)이 빠르게 진행
 - 이스라엘 사례* 등을 바탕으로 백신보급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
 - *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접종자의 감염률도 낮게 유지
 - 그러나 백신의 생산, 유통 및 유효성과 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 글로벌 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달성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을 가늠

주요국 누적 접종률¹⁾²⁾



주: 1) 1회 이상 접종자 비율 2) 2.21일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이스라엘 접종률¹⁾ 및 확진자수



주: 1) 전체인구대비 1회 이상 접종자 비율
자료: Our World in Data

(2) 주요 이슈 점검

① 글로벌 백신공급

□ 금년 글로벌 생산규모(주요 8개사 기준)는 현재 약 80억회분이며 설비 확충 등으로 최대 130억회분까지 확대 가능*

* 금년 2월 화이자社가 금년중 생산목표를 13억회분에서 20억회분으로 늘리는 등 제약사들이 조기 대량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량이 현재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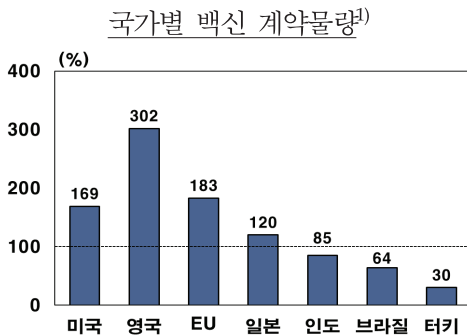
○ 세계인구(약 78억명) 대비 0.5~0.9배(2회 접종 기준) 수준으로 금년 중에는 충분한 백신공급이 어려운 상황

○ 이에 선진국이 선계약 방식으로 필요물량 이상을 확보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불균형이 심각(vaccine nat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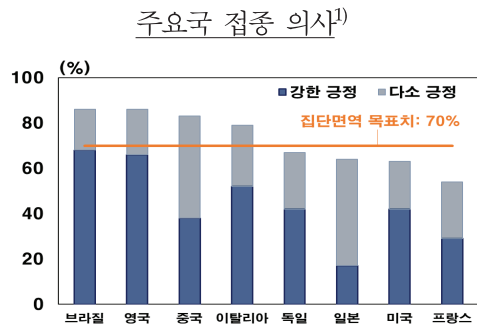
② 백신 수용 여부

□ 백신공급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 수용이 낮은 경우 집단면역 달성이 제약

○ 그러나 주요국 정부의 접종률 제고 의지가 강해 대체로 목표 기간 전후로 접종률 목표(70%) 달성이 가능할 전망



주: 1) 인구대비
자료: Bloomberg



주: 1) 백신접종 긍정 응답 비율
자료: Ipsos(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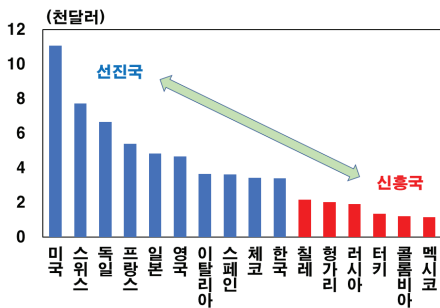
③ 접종 인프라

- 백신보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료·보건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은 대량 유통 및 접종 능력 한계로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신흥국은 일부 백신이 요구하는 냉동운송·보관 인프라(화이자 -75℃, 모더나 -20℃)의 구비가 여의치 않음

④ 변이 바이러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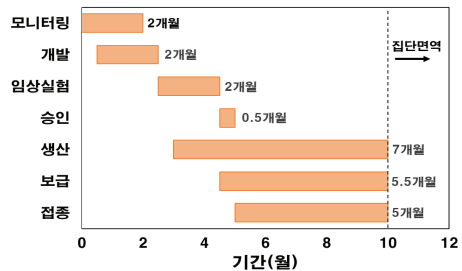
- 변이 발생으로 전파속도가 빨라지거나 既개발 백신의 효능이 저하될 경우 집단면역 달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
- 변이 발생시 집단면역에 필요한 최소 접종률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백신 재접종에 따라 일정이 지연
- 신종 백신(mRNA 방식)은 신속한 대응개발이 가능(2개월내)하나 임상실험 재실시로 약 10개월이 소요(Goldman Sachs)

1인당 보건지출액¹⁾



주: 1) 2019년 기준
 자료: OECD

신규 백신공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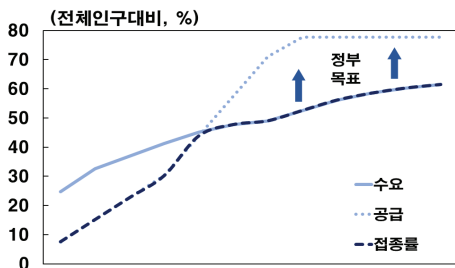
자료: Goldman Sachs

(3) 집단면역 달성 시점

-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 수준의 접종이 이루어지겠지만
신흥국은 국별 편차가 클 전망
- (선진국) 안전성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대부분 금년말경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
- (일반 신흥국) 공급시기가 선진국 보급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부분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면역 달성 가능
 - 아세안5 국가는 그간 감염 확산을 잘 통제한 편이었으나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오히려 중남미 국가보다 더딘 모습
- (자연면역률이 높은 신흥국) 인도·브라질 등은 의도치 않은
자연면역으로 접종률을 상회하는 면역수준을 보일 가능성
- (중국)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어 내년 중반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자국산 백신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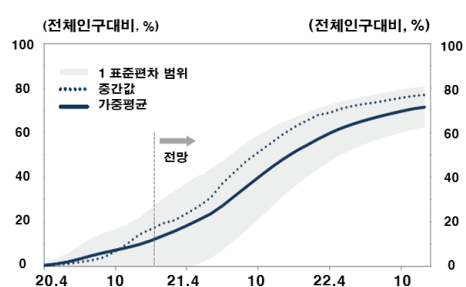
* 자국의 글로벌 지위 향상을 위해 백신을 전략적으로 활용(vaccine diplomacy)할
가능성(The Economist)

미국 수요¹⁾·공급²⁾·접종률³⁾ 전망



주: 1) 백신접종 수용 비율 등을 고려
2) 정부목표 3) 1차 접종 기준
자료: 자체 추정, 각국 정부발표 등

신흥국 면역률¹⁾ 경로 전망



주: 1) 자연면역 및 백신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 비율
자료: Goldman Sachs(1.28일)

(4)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① 성장

□ (선진국) 백신 우선 접종으로 금년 2/4분기를 지나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지며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소비는 상품소비가 지난해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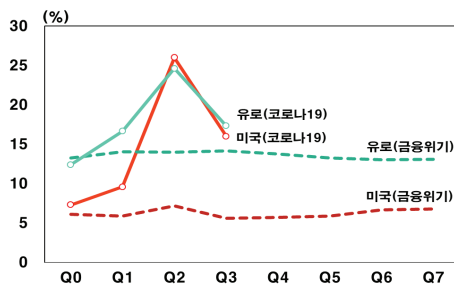
▪ 정부지원금 지급, 그간의 소비감소로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회복도 가능

○ 투자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유현금을 바탕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4/4분기부터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져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 예상

○ 수출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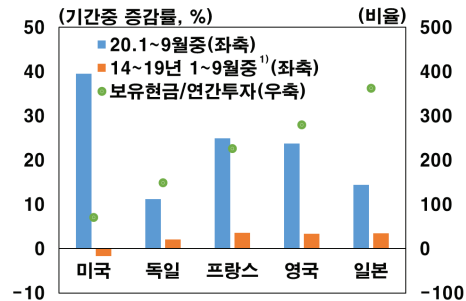
금융위기와 최근의 가계저축률¹⁾



주: 1) Q0: 금융위기 당시 08.4Q, 코로나19의 경우 19.4Q

자료: BEA, Euro stat

기업 보유현금



주: 1) 14~19년중 평균 기준
자료: OECD

○ 소비는 백신 확보 및 자연면역 수준 등에 따라 회복시점이 국가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 러시아는 자체 백신 등으로, 인도와 남미국가는 자연면역, 백신접종 등으로 2021년중 회복하겠으나, 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은 백신 공급 부족으로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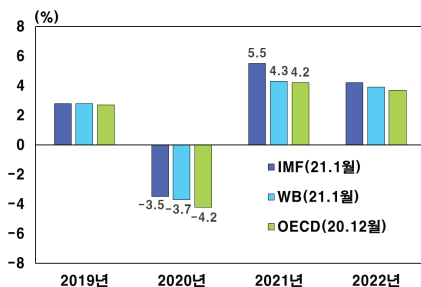
⇒ 백신보급과 집단면역 달성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는 소비 확대와 투자 개선으로 회복세가 빨라질 가능성

○ 백신보급 시차에 따라 금년에는 선진국이, 내년에는 신흥국이 순차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

○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는 선진국과 신흥국(중국 제외) 모두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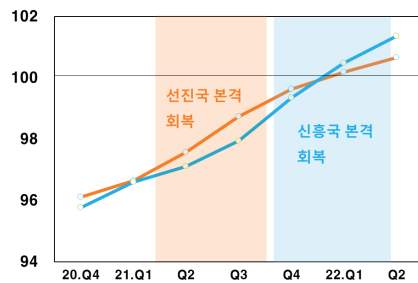
* 신흥국은 일단 백신보급이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소비 회복이 가세하면서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가능

세계성장 전망



자료: IMF, World Bank, OECD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¹⁾



주: 1) 19.4/4분기=100
자료: 조사국 자체 추정

② 교역

□ 향후 세계교역 회복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품 교역보다 인적교류 재개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정상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

○ (선진국간 교류) 주요 선진국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연말을 전후해 회복이 본격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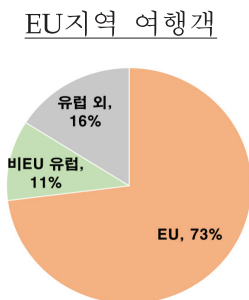
▪ 특히 EU 국가간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Schengen agreement)된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완화될 경우 조기에 회복 가능

○ (선진국-신흥국간, 신흥국간 교류) 감염 우려 지속으로 2022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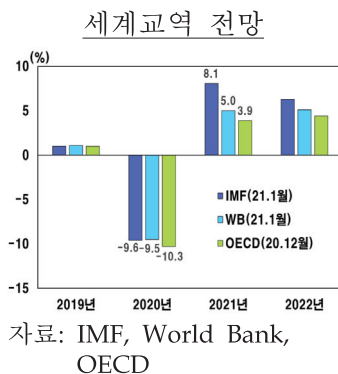
▪ 금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의 국가별 감염상황에 따른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지속

⇒ 금년중 세계교역은 성장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겠으나 내년에는 국가간 인적교류 정상화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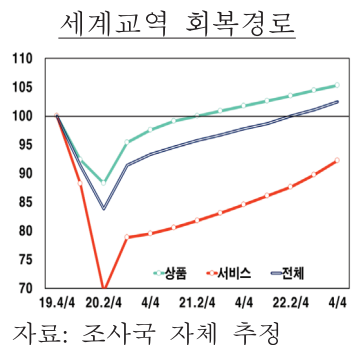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2022년 상반기경 회복할 것으로 예상



자료: UN



자료: IMF, World Bank, OECD



자료: 조사국 자체 추정

(5) 종합평가

- 최근 주요국에서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백신공급 및 변이 발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 이슈 점검 결과 선진국 등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겠으나 다수 신흥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선진국과 신흥국간 면역 차별화로 인해 바이러스의 전파기간이 길어지면서 변이 발생 및 기존 백신의 효능 저하로 글로벌 집단면역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 상존
- 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는 선진국의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에는 신흥국도 본격 회복되는 등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 세계교역은 상품교역 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 정상화 지연으로 성장에 비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전망

2.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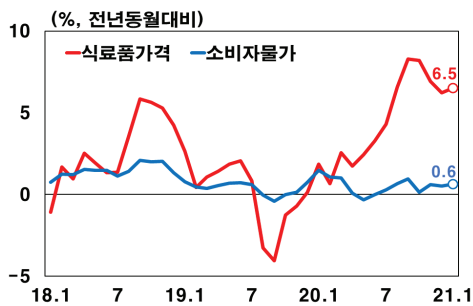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가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지출목적별 분류상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농축수산물(생화, 인삼 제외) 및 가공식품(주류, 홍삼, 건강기능식품 제외)으로 구성. 소비자물가 내 비중(가중치 기준) 13.8%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식료품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체감물가가 상승
- 국제곡물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일각에서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를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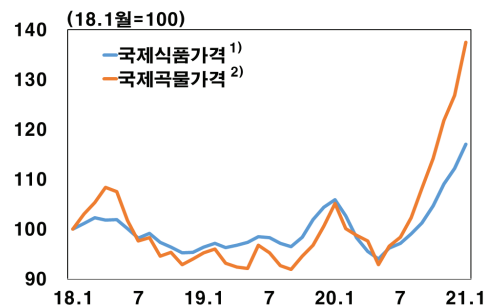
⇒ 최근 식료품가격 급등의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과거 상승기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를 평가

소비자물가와 식료품가격



자료: 통계청

국제식량가격



주: 1) FAO food price 지수 기준
2) World Bank의 Grain 및 Oil & Meals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자료: UN FAO, World Bank, 한국은행

(2) 최근 식료품가격 동향 및 변동요인

□ 지난해 하반기중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한 식료품 가격은 금년 들어서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최근 우리나라의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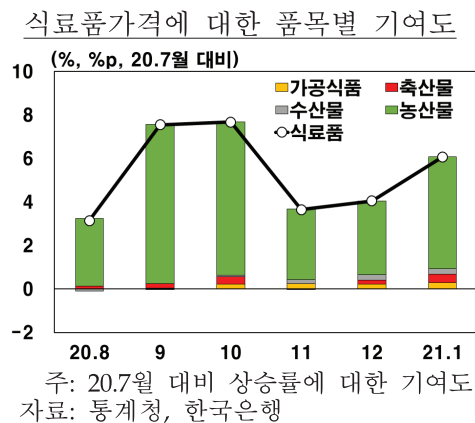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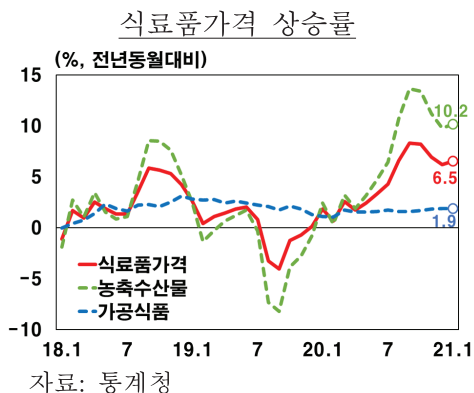
* 2020년 상승률(%): 한국 4.4 미국 3.5, 독일 2.3, 일본 1.2, 영국 0.7

○ 최근의 식료품가격 오름세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이 주도하는 가운데 달걀 등 일부 축산물의 영향이 가세

- 농산물가격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축산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영향으로 달걀 및 닭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21.1월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달걀 15.2, 닭고기 7.5

- 가공식품가격은 2%를 밑도는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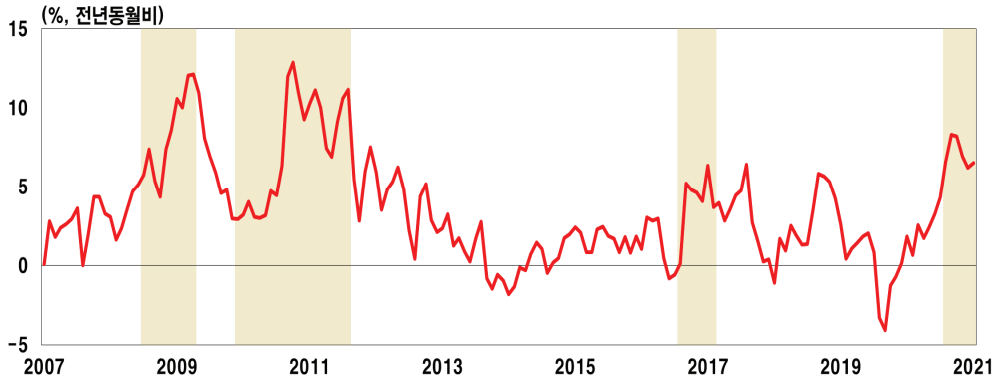
(3)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식료품가격 상승기)

- 식료품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2008~09년, 2010~11년, 2016~17년 및 2020~21년(진행중)의 네 차례 상승기*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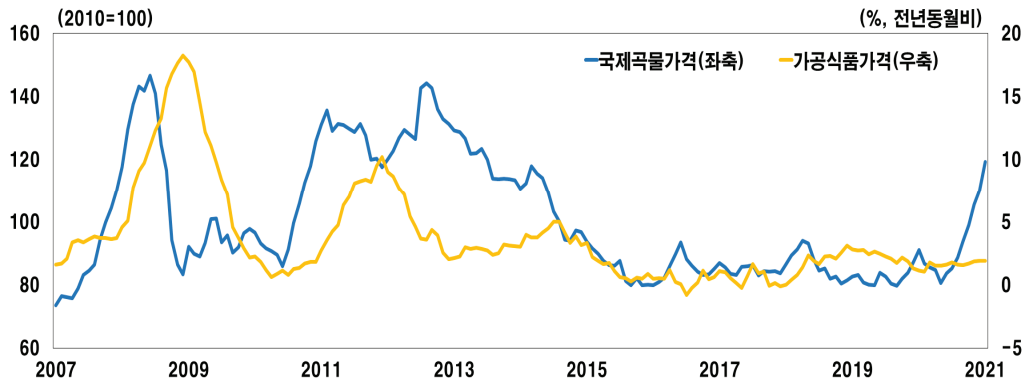
* 식료품가격 오름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동 기간중 월평균 상승률이 1% 이상인 경우

식료품가격 상승률 추이



주: 음영은 식료품가격 상승기를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공식품가격 상승률 및 국제곡물가격¹⁾ 추이



주: 1) World Bank의 Grain(밀, 옥수수 등) 지수와 Oil & Meals(대두, 식물성 유지 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World Bank, 한국은행

① (2008~09년) 2008.7~09.4월(10개월) 중 11.9%(08.6월 대비) 상승

- 가공식품가격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농축수산물가격은 겨울철 가뭄의 영향으로 2008년말 이후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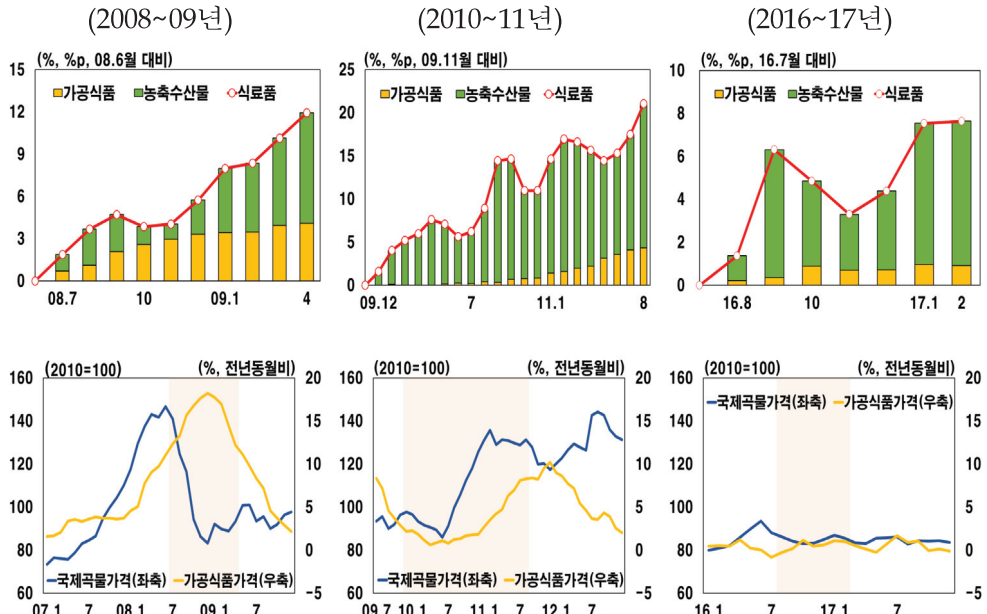
② (2010~11년) 2009.12~11.8월(21개월) 중 21.1%(09.11월 대비) 상승

- 농축수산물가격은 연이은 기상여건 악화 및 구제역 확산의 영향으로 장기간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가공식품가격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1년 들어 오름폭이 확대

③ (2016~17년) 2016.8~17.2월(7개월) 중 7.6%(16.7월 대비) 상승

- 가공식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농축수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및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

과거 상승기의 식료품가격¹⁾ 및 국제곡물가격²⁾



주: 1) 각각 08.6월, 09.11월 및 16.7월 대비 식료품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2) 음영은 식료품가격 상승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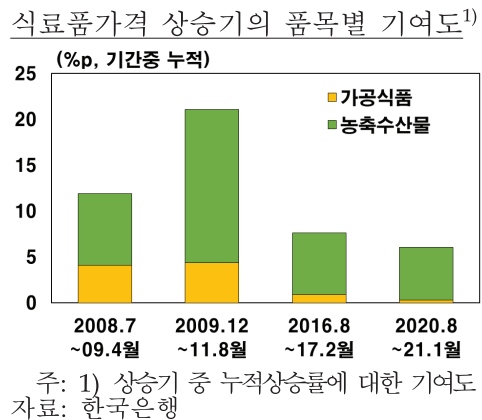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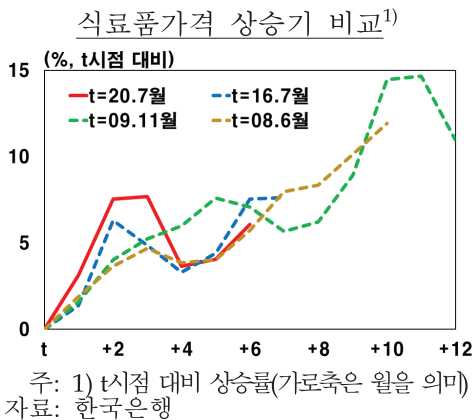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World Bank, 한국은행

(최근 상승기에 대한 평가)

-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식료품가격 상승기*는 농축수산물이 주도하는 가운데 국제곡물가격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2010~11년 상승기의 초기와 유사한 모습

* 20.8~21.1월(6개월) 중 6.1% 상승

- 농축산물가격 급등 시기(8월~익년초) 및 주요 변동요인(기상여건 악화, 조류독감 확산) 측면에서는 2016~17년 상승기와도 유사



-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국제곡물가격 오름세가 보다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향후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식료품가격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 과거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비추어 볼 때, 국제곡물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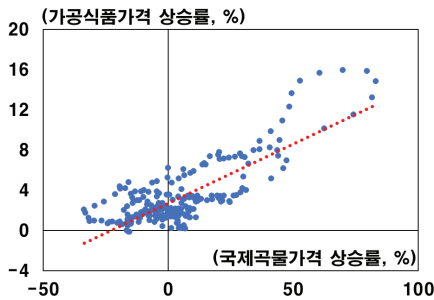
* 국제곡물가격지수(2010=100)가 85를 상회하는 가운데 오름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동 기간중 월평균 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로 식별할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07.9~08.7월, 10.7~11.4월 및 20.8~21.1월(진행중)이 해당

** 시차상관관계 분석결과 약 10개월 후의 가공식품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

- 최근 국제곡물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가공식품가격에 대한 영향은 현재까지 미미한 편*

* 국내 가공식품 관련 업계는 올해 4월말~5월초까지의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7~9월까지의 소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1.2.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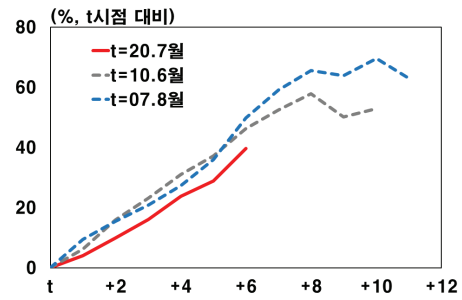
국제곡물가격과 가공식품가격



주: 국제곡물가격 및 10개월 후 가공식품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 3개월 중심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제곡물가격 상승기 비교



주: t시점 대비 상승률(가로축은 월을 의미)

자료: World Bank, 한국은행

(4) 종합 평가

- 식료품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상여건 악화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
 - 과거 식료품가격 상승기에 비추어 볼 때, 농축수산물가격 급등세는 추가적인 충격이 이어지지 않는 한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식료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오름세가 보다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식료품가격 오름세 지속으로 재료가 상승할 경우 향후 외식물가에 대해서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만 그 영향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세의 강도 및 지속기간, 국내 수요 회복세, 관련 업계의 물량 비축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최창호 김대용
I. 대내외 여건 점검		
1. 세계 경제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신흥국 국제유가 2. 국내 경제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주요 전망 전제치>	조사국	박병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이규환 이재진 신동수 주연희 민은지 윤남준 이정기 이택민 송효진 배기원 임상은 이재운 박종욱 김동훈 조병수 황나운 김대용 김형진
II.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2) 설비투자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 건설투자 (5) 상품수출 (6) GDP성장률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조사국	광범준 김주완 고종석 이흥후 안준영 박재현 이나운 임준혁 광윤영 이균건 이윤정 김대용 신동주 김민우 황수빈 유민정 이승철 오강현 이병록 김윤경 강재훈 강달현 김선진 안희정
III. 주요 현안점검		
1.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2.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조사국	박병길 오강현 김하은 안준영 이병록 남현우

경제전망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김 응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
발행일 2021년 2월 25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